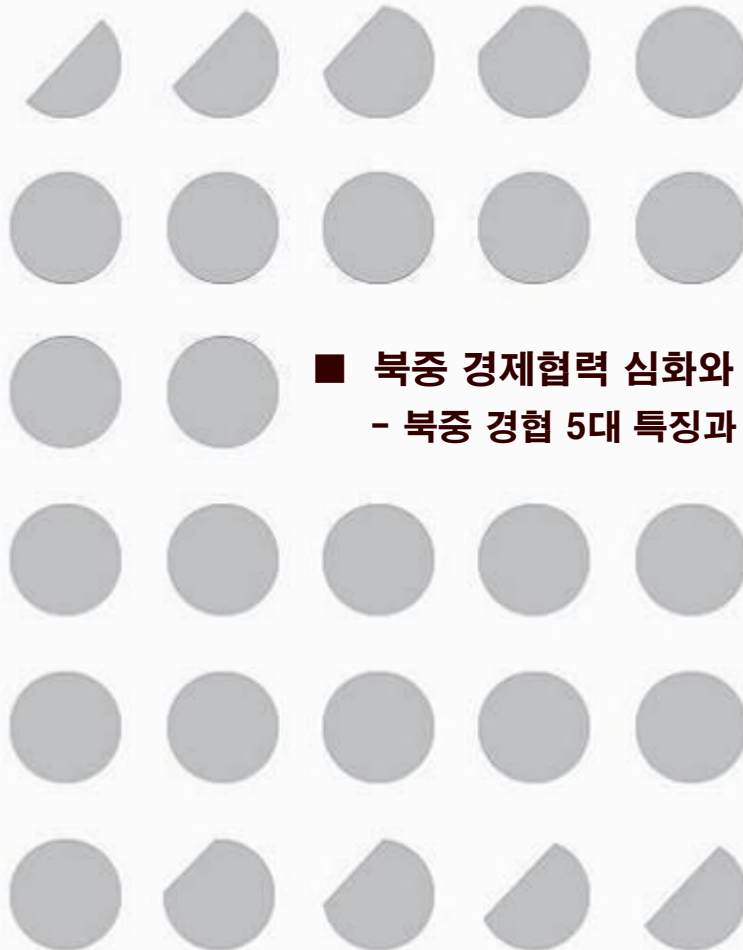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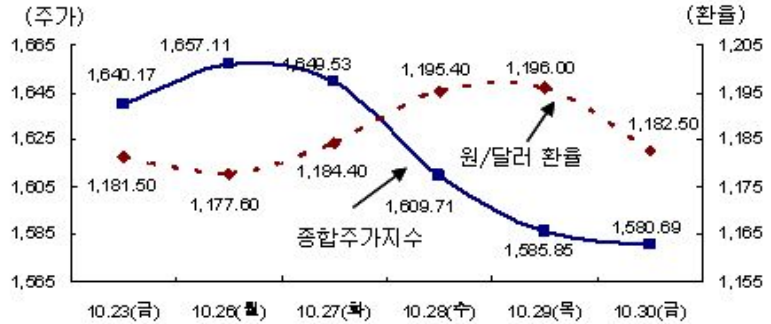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 영향
- 북중 경험 5대 특징과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23~10.3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 영향	
- 북중 경험 5대 특징과 시사점	1
주간 경제 동향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최 성 근 선임 연구 원 (3669-4405, csk01@hri.co.kr)

<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 영향 >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급속한 진전

- 2000년 이후 북중 간 교역의 지속적인 증가 및 대중 교역의존도 심화
 - 남북 교역의 감소가 북중 교역의 증가로 귀결
- 중국, 북한에 대한 제 1투자국으로 부상, 현재 총 투자액의 90%를 점유
 - 최근 원자바오 총리 방북과 함께 다수의 북중 경제협정 체결

북중 경제협력의 5대 특징

- ①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 유출 심화
 -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증가와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투자 집중
- ② 북한 전략물자의 대중 의존도 심화
 - 식량과 에너지 부문 등 전략 물자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 ③ 대중 교역의 지역 편중성 심화
 - 북한 접경지역인 동북 3성에 대한 수출입 편중 현상 심화
- ④ 중국의 전략적인 대북 인프라(SOC) 투자
 - 중국의 동북 지역개발과 연계되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투자 집중
- ⑤ 북중 관광 협력의 확대
 - 낙후된 북한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및 제도적 지원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배경

- 북중 간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인 이해의 공유
 -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북한의 지정학적 이해의 일치
-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추구
 -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전략과 북한의 경제성장 기반과 동력 마련
-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북한 선점
 - 대북 영향력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정치적 위상 제고와 물류 및 자원 기지의 선점

시사점 및 대응 과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 南南北北의 지역분할 구도 고착화 및 남북 경협 약화 가능성 존재 -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과 개발 이익의 선점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대북 접근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 동북3성과 북한 접경 지역 개발 과정에 중국과 동반 진출 -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 투자 및 자원 조달 대책 마련 - 개성공단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

Executive Summary

□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 영향 - 북중 경제협력의 5대 특징과 시사점

1.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급속한 진전

(최근 북중 경제협 현황)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급진전 되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 2000년 이후, 북중 무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8년 점유율이 거의 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북 교역과 북중 교역을 비교했을 때, 남북 교역이 감소된 경우, 북중 교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남북 관계의 악화가 곧 북중 교역 증대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2008년 북한에 대한 총 투자액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함께 다양한 경제협력조치들과 협정의 체결로 북중 경제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2. 북중 경제협력의 5대 특징

(북중 경제협 5대 특징) ① 북한 지하자원 대중 유출 심화 :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을 조사해본 결과, 무연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북 총 투자액의 70%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② 북한 전략물자의 대중 의존도 심화 : 풍부한 지하자원과는 달리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물자들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교역의 지역 편중성 심화 :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2002년 이후, 랴오닝 성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랴오닝성의 단둥 지역과 지린성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동북 3성의 편중이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④ 전략적인 대북 인프라(SOC)투자 : 후진타오 정부 들어서서, 중국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을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확정하고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 등 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은 북한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북중 경제협을 확대하는 한편, 동북 지역 개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나진항 개발권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신의주와 압록강변을 중심으로 북중 간 대규모의 경제협력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⑤ 관광협력의 확대 :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북한은 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 개발, 관광철로 개발, 관광도로 개통 등 낙후된 관광인프라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관광협력사업을 위해 무비자 관광이나 영사 설립, 관광 협정 체결 등 각종 제도적인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배경

(배경)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된 배경으로는 첫째, 북중 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공유를 들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전략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적 현상유지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체제 붕괴를 방지하고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 발전과 개방을 통해 핵무기개발 의도를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전략이 바탕에 깔려있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난과 고립적인 상황의 극복 및 대미협상력 강화 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추구이다. 중국은 현재 낙후된 동북지역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지역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압록강(신의주)과 두만강(나진선봉지구)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를 수용함으로써, 협력관계 구축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기반과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북한 선점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협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위상을 제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류기지요, 자원의 전진기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 대한 선점을 통해, 향후 보다 높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4. 시사점과 대응 과제

(시사점) 북중 간 경제협력의 심화는 ①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② '南南北中'의 한중 간 지역분할 구도 고착화 가능성 및 남북 경협의 약화 가능성 존재 ③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및 개발 이익의 선점 등의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대응 과제) 북중 경제협력 심화에 따른 파급 영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 관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한편,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동북 3성 개발 과정에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의주 일대 경제특구와 나진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다자간 금융협의체를 통해 자원개발펀드를 설립하는 등의 자원조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강산·개성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북한 기업의 진출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개방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 건설을 위해 단순한 물량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책 보다는,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 전략 및 시장경제의 운용 노하우 전수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최근 북중 관계의 급속한 진전

○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며, 최근 들어 남북 교역은 감소한 데 반해, 북중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교역의존도 심화) 2002년 이후, 북중 교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8년 점유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08년 북중 교역은 27억 8천 7백만 달러로서 전체 교역액 중 49.5%를 차지하며, 남북 교역을 제외하면 73%의 교역 점유율을 나타냄
 - 북한의 對 한·중·일의 교역 비중은 2000년에 모두 20%정도를 나타냈지만, 2008년 현재, 대중 교역 비중이 다른 두 국가의 비중을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남
 - 2008년 북한의 수입 총액은 26억 8천 5백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억 3천 3백만 달러로서 75.7%에 이룸
 - 2008년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할 때 수입이 수출 보다 약 3배 정도 많고, 무역수지는 12억 7천 8백만 달러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함

< 북한의 對한·중·일 교역 비율 추이 >



<북한의 대중 무역 실적 >

단위 : 백만 달러, ()안은 총액에 대한 비율

구분	수출		수입		무역적자	
	對중	총액	對중	총액	對중	총적자
2000	37.2(6.7)	556	450.8(31.9)	1,413	413.6(48.3)	857
2001	166.8(25.7)	650	570.7(35.2)	1,620	403.9(41.6)	970
2002	270.7(36.8)	735	467.3(30.6)	1,525	196.6(24.9)	790
2003	395.3(50.9)	777	627.6(38.9)	1,614	232.2(27.7)	837
2004	585.7(57.4)	1,020	799.5(43.5)	1,837	213.8(26.2)	817
2005	499.2(50.0)	998	1,081.2(54.0)	2,003	582.0(57.9)	1,005
2006	467.7(49.4)	947	1,231.9(60.1)	2,049	764.2(69.3)	1,102
2007	581.5(63.3)	918	1,392.5(68.9)	2,022	811.0(73.5)	1,104
2008	754.0(66.7)	1,130	2,033.2(75.7)	2,685	1,278.2(110.7)	1,155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각호.

- (남북 교역 감소) 북중 교역 증가율은 2008년에 전년 대비 41.2%를 나타낸 데 반해, 남북 교역은 불과 1.2% 증가하는데 그침
- 2000년 이후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의 추이를 비교할 때, 남북 교역이 악화될 경우, 북중 교역은 늘어났으며, 반대로 남북 교역이 늘어나면 북중 교역은 감소하였음
- 예컨대, 2002년 2차 북핵 위기 발생 후, 남북 교역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북중 교역은 급증하였음
- 2005년 대규모 대북 지원과 함께 남북 경협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 교역이 증가하자, 북중 교역은 감소세로 돌아섬

<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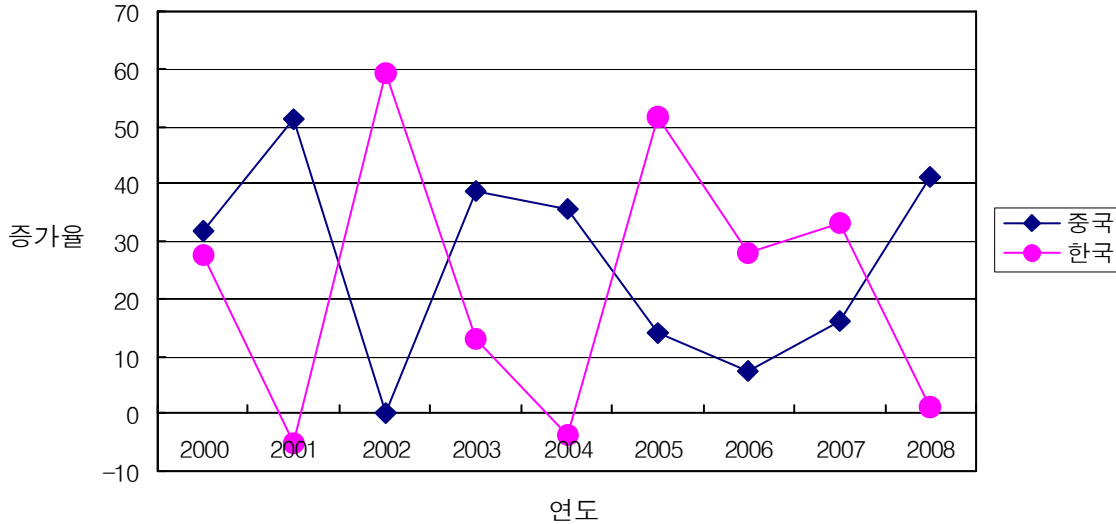
단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중교역증가율	31.8	51.1	0.1	38.6	35.4	14.1	7.5	16.1	41.2
남북교역증가율	27.5	-5.2	59.2	12.9	-3.8	51.5	27.8	33.2	1.2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각호.

주 : 교역증가율= (지난해 교역액 - 현재 교역액) ÷ 지난해 교역액

<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 증가율 추이 비교 >



○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국이며,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이전 보다 확대하고 있음

- (대북 투자 점유율 증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북한에 대한 총 투자액의 90%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경제적 제도가 정착되면서 북한의 외자유입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
 -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2년 1백 5십만 달러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4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북한의 제 1의 투자국으로 부상함¹⁾
 - 2008년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정부가 공식 비준한 대북 투자는 총84건, 4.4억 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데 북한과 협의된 투자 총액은 2.6억 달러임²⁾

1)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며, 이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2008년 중국의 대북 투자액 4천 4백만 달러라는 수치는 UN무역개발협회의(UNCTAD)에 보고된 북중간 투자가 실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World Investment Report 2008을 참고 바람. 이외에도 북한 투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 가을호. 배종렬에 따르면, 중국의 2004년 대북 투자는 5,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4년 유치액 5,900만 달러의 85%를 차지했으며,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은 약 40%를 차지하였음.

2) 배종렬, 위의 글.

< 북한의 외자 도입액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DI(해외→북한)	-15	158	40	50	-105	67	44
FDI(중국→북한)	1.5	1.12	14.13	6.50	11.06	18.40	41.23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해당연도 자료, 김영근 「통일경제」, 2008. 여름호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 상무부, 2008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2009.10월 13일 검색) 참고

주 : 본 통계는 대북 투자 실행액 기준이며 투자 합의액은 고려하지 않음.

- **(투자협력 조치 강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양국의 투자협력 노력이 강화됨
 - 2004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함
 - 2004년 2월 대북 투자 전문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를 설립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도록 함
 - 북한은 2005년 2월, 북경에서 ‘조선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여, 300여 기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투자환경과 각종 특혜정책 및 20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발표함
 - 2005년 3월, 북한은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과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을 중국과 체결하여 투자 자산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대북 투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킴³⁾
 -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은 방북 시, 김영남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중간의 상호이익 및 공동 발전 원칙에 입각하여 여러 형식의 합작투자 사업 진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2009년 10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신압록강대교 건설 및 나진항 개발을 골자로 하는 투자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합의문과 양해각서에 조인함⁴⁾

3) 자세한 내용은 KOTRA(2006) “북한의 외자 유치 현황과 전망” p.15-16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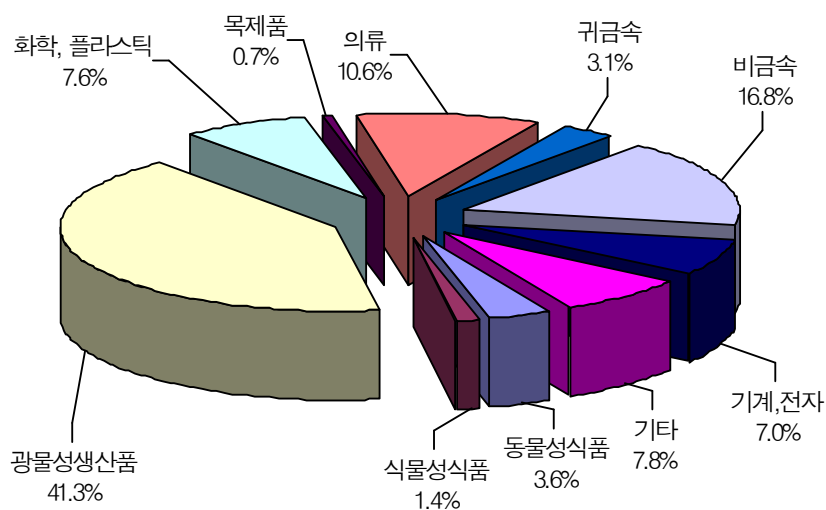
4)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방북에서 ‘경제 원조에 관한 교환 문서’, ‘조약 정리 의정서’, ‘경제 기술 협조 협정’, ‘교육 기관 간 교류 협조 합의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교류협조 양해문’, ‘중국 관광 단체의 조선 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등을 한꺼번에 조인함. 「연합뉴스」 2009. 10. 26.

2. 북중 경협의 5대 특징

① 지하자원 대중 유출 심화

- (교역)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을 살펴볼 때, 지하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 석탄, 아연 등의 광물자원이 전체 수출품 가운데 41.3%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 가운데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입액 가운데 28.8%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대중 주요 수출품목의 추이를 살펴볼 때, 2004년 어패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5년 이후 무연탄과 철광석등 광물자원이 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이러한 현상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분석이 되며, 북한은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8년도 북한의 對중 수출 품목별 비중 >



자료: KOTRA, 「200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북한의 5대 수출 품목 추이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오징어, 조개	128,148	무연탄	108,273	무연탄	96,651	무연탄	162,619	무연탄	201,273
2	계류	74,135	철광석	66,521	철광석	76,594	철광석	79,952	철광석	172,259
3	갈치, 명태	57,252	오징어, 조개	51,140	오징어, 조개	38,177	아연	47,667	오징어, 조개	36,064
4	남성의류	49,085	철스크랩	34,89-	여성의류	19,214	오징어, 조개	25,798	선철	35,005
5	철광석	44,521	갈치, 명태	23,270	여성의류	19,114	선철	22,188	합금철	31,039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주 : HS Code 4단위 기준

- (투자)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지하자원 개발에 총 투자 금액의 70%가 투입되고 있음⁵⁾
 - 중국은 총 25건의 외국 자본의 북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20건을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확인된 12건의 투자금액은 5,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의 광물은 세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더불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은 북한 지하자원 개발의 경제성을 높여주고 있음⁶⁾
 - 그러나, 북한은 시설의 노후화, 전력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지하자원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임
 - 중국은 이러한 조건을 역이용, 북한의 열악한 개발 여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북한 지하자원의 장기 채굴권을 획득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⁷⁾
 -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정치적 리스크의 부재, 동북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 등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이점을 갖고 있음

5) 김영근(2008), 배종렬(2008), 앞의 글.

6)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약 7,0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단천의 마그네사이트광은 노출된 길이만 7,600m, 깊이가 2~100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광산이며, 마그네사이트는 원광석의 품위가 43~47%내외로 추정되어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짐.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현황' 2009. 9, 윤지훈, 'Special Report-북녘의 지하자원', 「민족21」 2009년 10월호 등을 참고.

7) 중국에서 북한의 광물을 수입하는 단둥영달무역의 박대영 총경리는 “중국은 북을 자원기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 기업들은 북의 정책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으며, 선투자에 대해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이 정치적 위험 부담을 이유로 선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의 자원 선점에 있어 기회를 놓칠 것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윤지훈, 「북녘경제 전망대」 95호 2009. 2. 1.

② 전략물자의 대중 의존도 심화

- (식량과 에너지 부족)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와는 달리,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임
 - 북한의 원유수입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입규모에 있어서 거의 일정한 양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보임
 - 원유 공급의 경우,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외화 부족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무역수지의 악화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곡물의 경우에도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을 제외하면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2008년 곡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중국의 식량수출 통제정책과 곡물시장 불안정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원유 외에도 기계, 전기기기, 부속품 등 자본재에 있어서도 중국수입비중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성장은 곧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북한의 대중 전략물자 수입비중 추이 >

단위: 만톤,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유	47.2 (79.1)	57.4 (100.0)	53.2 (86.8)	52.3 (100.0)	52.4 (100.0)	52.3 (100.0)	52.9 (100.0)
곡물	21.9 (21.8)	34.9 (43.1)	9.0 (30.0)	33.1 (38.5)	7.9 (79.0)	13.6 (35.9)	11.9 (42.2)

< 2008년도 대중 수입 상위 5대 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품목	교역액	점유율	증감률(전년대비)
1	광물성 연료, 광물유	586.0	28.8	45.8
2	원자료, 보일러와 기계류	145.5	7.1	40.1
3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100.6	5.0	45.3
4	의류/부속품(메리야스, 뜨개질편물)	86.9	4.3	265.3
5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0.0	3.9	46.6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③ 교역의 지역편중 심화

- (동북 3성 비중 증가)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2002년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
 - 북한의 대중 교역액 중 동북 3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5.6%를 차지 하였으며,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06년 65.4%까지 하락함
 - 이는 랴오닝 성의 수출 교역 비중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며 특히, 수출 부문에서 2차 핵위기 이후 이뤄진 대북경제 제재와 생산 과잉에 의한 단가 하락 등으로 대랴오닝성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⁸⁾
 - 그러나, 2007년 들어서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 교역 비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지린성과의 수출, 수입 비중이 각각 25.8%와 20.9%로 증가하였음
 - 이는 지린성을 통해 들어오는 북한 지하자원의 양이 늘어나고, 북한무역회사와 개인에 대해 인민폐 무역전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등, 지린성과 북한과의 교역 여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임⁹⁾

< 북한의 동북 3성과의 수출입 비중 추이 >

단위 :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동북3성	78.7	76.8	72.5	67.2	65.4	68.9	75.6
	랴오닝성	47.7	46.7	43.1	35.9	33.9	38.5	35.2
	지린성	15.6	14.4	14.5	15.3	13.9	13.7	22.2
	헤이룽장성	15.3	15.7	15.0	16.0	17.7	16.7	18.1
수출	동북3성	93.5	94.3	84.9	70.9	71.5	65.0	71.4
	랴오닝성	80.4	81.7	66.5	48.7	44.1	44.8	45.5
	지린성	12.4	12.5	18.0	20.7	27.0	20.1	25.8
	헤이룽장성	0.8	0.1	0.4	1.6	0.4	0.08	0.1
수입	동북3성	70.1	65.8	63.4	65.4	63.1	70.6	77.1
	랴오닝성	28.9	24.6	26.0	29.9	30.0	35.8	31.4
	지린성	17.5	15.7	11.9	12.8	8.9	11.1	20.9
	헤이룽장성	23.8	25.5	25.6	22.7	24.2	23.7	24.8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NET.

8)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수은북한경제」 2006년 겨울호. p. 55.

9) 「연합뉴스」 2008. 2. 21.

④ 전략적인 대북 인프라(SOC) 투자

- **(동북지역개발계획)** 후진타오 정부 들어, 중국은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 변경지역의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2003년 10월, 「동북 3성 진흥계획」을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확정하고, 이 지역의 국유기업 지원, 각종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 조세 및 재정지원 그리고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¹⁰⁾
 -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두만강지역 개발 프로그램(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05년 장춘투자포럼을 통해 북중간 나진항 개발협상을 시작¹¹⁾
 - 중국은 이미 북한 접경지대를 통과하여 동북 3성을 이어주는 동벤다오(東邊道)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음¹²⁾
 - 2009년 7월, 라오닝성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이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으며, 이로써 북한 접경지역인 단둥을 포함한 라오닝 연해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개발이 추진될 전망¹³⁾

- **(투자 현황)** 최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함께 압록강과 나진항에 대한 각종 경제협정 및 대규모 지원 계획 체결로 인해 향후 북중 경협이 토대 마련
 - 이미 2007년 초,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공사비 전액(약 2,2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압록강대교의 건설을 공식 제의함
 - 원총리의 방북 시 북한이 이같은 조건을 수용하고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중국과 공식 합의함으로써, 향후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경협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10) 최수영, “북-중 경제협력 확대의 영향과 향후과제” 2006, 「북한경제포럼」 발표 논문.

11) 2005년 9월 훈춘나선 일체화 계획에 대한 양국의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북한은 라선국제물류협영회사에 라진항 제 3호 부두의 50년간 사용권과 제4호 부두신설 및 50년 사용권을 부여함, 최수영 위의 논문, p. 57.

12) 동벤다오 철도는 헤이룽장성 무단장에서 출발하여 지린성과 라오닝성의 북한접경지대를 거쳐 단둥과 다롄에 이르는 총연장 1380km의 철도임. 동북3성을 하나로 묶어줄 이 철도는 동북지방의 발전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경협확대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전망, 「연합뉴스」 2009. 7. 10.

13) 중국은 2007년 단둥시와 압록강 하구의 항구 동향을 연결하는 ‘단둥임항산업원구(단지)’ 계획과 함께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약 400억 위안을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하였음. 「경향신문」, 2009. 9. 22.

- 신의주 경제 특구 및 자유무역지대 재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 압록강대교 건설은 향후 북중 경협 확대 및 북한경제의 개방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다고 할 수 있음¹⁴⁾
- 이번 원총리의 방북 시, 중국은 북한에 대해 훈춘 ~ 나진항을 잇는 93Km의 도로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나진항 부두 개발권도 추가로 확보함¹⁵⁾
- 나진항 부두 개발권은 1호 부두의 독점 사용권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대외 개방을 겨냥한 본격적인 대북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 한편, 중국은 동북지방 및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동해를 통해 남방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류기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낙후된 동북 지역의 개발의 발판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나진항 개발 추진 과정 >

시기	주요 사업 내용
1995년	- 훈춘시, 나진항 출합협약 체결
2003년 12월	- 훈춘시, '중국-북한 도로 및 항구일체화' 사업 제안
2005년 3월	- 북중, 나진항 개발 합의 - 나선시와 나진-원정 도로건설 MOU 체결
2005년 7월	- 북중, 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 설립 - 3호 부두운영권과 4호 부두 개발권 획득 - 圈河 항구와 나진항 사이의 도로 50년 사용권 획득
2005년 9월	- 북중, '중국-북한 도로 및 항구일체화' 사업 합의
2006년 2월	- 북중, 녹색통로 개설
2006년 5월	- 원정- 나진항 도로 건설 방안 확정
2006년 10월 ~	- 도로 주변 준비작업 완료 후 착공 예정 - 북한 핵실험과 자금부족 등으로 착공 연기
2007년 2월	- 지린성, '두만강 개방·개발 가속화 방안' 마련 - 나진항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금 우대정책 실시 결정
2007년 9월	- 훈춘동림무역회사, 미국의 마드리그룹과 4억 달러 투자계약
2009년	- 중국 나진항 1호 부두 1호 선석 보수 완공 - 1호 부두의 2, 3호 선석 착공 예정

자료 : 허소영, 「북한해양수산리뷰」 2009. 9월. 제6호 p. 8.

14) 2007년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단도를 경제특구 및 금융센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중국측 외교관들에게 밝힌바 있음, 「통일뉴스」, 2007.3.23.

15) 부두의 개발권은 중국 다래 환경설비업체인 창리그룹이 따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진항 부두개발권은 1호 부두의 2, 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하여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으로 연간 10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됨. 「매일경제」 및 「내일신문」 2009.10.8.

⑤ 북중 관광협력의 확대

- **(북중 관광 인프라 개선)** 북한은 관광객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의 고려항공은 평양과 상하이를 잇는 직항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며 향후 평양과 항저우, 칭다오를 오가는 특별전세기 운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⁶⁾
 - 2006년 중국인들의 도박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단둥-신의주 관광이 최근 3년 만에 다시 재개됨¹⁷⁾
 - 중국 지린성의 투먼(圖們)시 정부는 최근 북한 관련부서와 관광협력협의서를 체결하고, 2009년 5월 중국 투먼에서 남양, 청진, 칠보산까지 가는 열차 관광 노선을 개설함¹⁸⁾
 - 최근, 백두산 일대 주요 관광지를 자동차로 둘러볼 수 있는 ‘백두산순환로’가 10일 개통식을 가졌으며, 백두산 1일 관광이 가능해 짐¹⁹⁾
 - 중국은 올해로 양국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을 중국 공민단체의 국외관광 목적지로 결정한 뒤, 9월 첫 단체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²⁰⁾

- **(제도적 지원)** 최근 북한과 중국은 양국 간의 관광협력을 위한 협정 및 각종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은 단둥을 변경여행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권이나 비자 없이도 신분증만으로 북한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였음²¹⁾
 - 북한은 2009년 8월, 북한 변경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단둥시에 주 선양 단둥 영사지부를 개설하였음²²⁾
 - 2009년 10월 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평양에서 ‘중국 관광객의 북한관광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정부차원에서의 관광협력사업이 향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됨

16) 「국민일보」, 2009. 7. 16.

17) 「연합뉴스」, 2009. 4. 30.

18) 원래는 2009년 5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현재 철도개통을 위한 실무협상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짐
「내일신문」, 2009. 7. 2, 「연합뉴스」 2009. 7. 11.

19) 「조선일보」 2009. 10. 14.

20) 「노컷뉴스」 2009. 8. 27.

21) 「연합뉴스」, 2009. 4. 14.

22) 「동아일보」 2009. 8. 27.

3. 북중 경협 확대의 배경 및 평가

○ 북·중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전략적 이해 공유

-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중국은 대한반도 전략의 목표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적 현상유지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강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일 동맹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
 - 북한의 체제 유지와 비핵화는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체제 붕괴를 막는 동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도입하여, 핵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함

- **(북한 고립의 타개)** 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상황을 타개하고자 함
 - 2001년 부시 정부 등장 이후,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잇따른 핵위기와 핵실험으로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를 실시함
 - 일본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교역을 거의 중단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
 -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대북 사업과 남북 교역 및 대북 지원까지 감소 또는 중단되었음
 -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상황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결국, 중국과의 정치·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과의 핵문제 회담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추구

-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도모)**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낙후된 동북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중국은 동북 3성 지역개발 계획을 국가적 중점 사업으로 확정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동북지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북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접경지대 발전 및 북한의 항구를 통한 해외 진출 도모
 -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과 동시에 풍부한 북한 지하자원의 선점을 통한 기초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확보
- **(경제성장 기반 확충)**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 발전이 힘든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발전의 기반과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투자가 부족한 가운데 북한이 국가 목표로 설정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함
 - 국제적인 지원과 자본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우호국가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가장 용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임

○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 및 북한 선점 의도

- **(지정학적 이익 선점)**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지정학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북한을 선점하려는 가능성 존재
- 중국은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내에 두고자 함
 -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을 선점하고자 함
 - 북중 경협을 통한 시너지 효과 뿐 아니라, 새로운 동북아시아 물류기지와 동북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전진기지 확보 및 관광특구 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고자 함

4. 북중 경협 확대의 시사점과 대응과제

○ (시사점) 북중 경협 심화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南南北中'의 한중 간 지역분할 구도 고착화 및 남북 경협의 약화가 우려

-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 핵문제와 대북 제재로 인해 당분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 심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 경협의 레버리지 약화 및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또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북한 산업구조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더불어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와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편입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南南北中' 지역 분할구도 고착화 및 남북 경협의 약화 가능성 존재

- 북중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 개성과 금강산은 한국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개발은 중국이 담당하는 '南南北中' 분할구도가 형성될 수 있음²³⁾
- 이는 북한 경제구조를 이분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경제 구축과 남북 경협의 남북 경협의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동시에 향후 남북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북한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는 남북 경협의 약화 및 이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상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및 개발 이익의 선점

- 중국의 장기채굴권 확보로 인해 북한 지하자원 대중 유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쟁력 있는 광물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하자원 선점이 예상됨
- 현재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자유무역지대 및 경제특구 건설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중국의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개발 이익의 선점이 우려됨

23) 홍순직, "북한의 南南北中 개발 전략 가시화"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6. 2. 6.

○ **(대응 과제) : 남북 관계 개선 및 중국과의 동반투자를 통한 북한 진출 및 현재의 남북 경협 확대 방안 마련 시급**

- **(남북 관계 개선)** 유연한 대북 접근으로 북중 관계 심화에 따른 파급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기반 마련
 - 현재의 대화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 관계를 보다 진전시킴으로써, 북한 경제 개방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및 중국의 북한 선점에 대응
 - 북중 관계가 남북 관계의 공백을 대체하지 않도록,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동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의 확대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례화 추진

- **(중국과 동반 진출)** 동북 3성 및 북한 접경지역 개발 과정에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및 장기적 계획 수립
 - 북한 진출에 있어서 남한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자금 확보 및 사업추진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한중 협력을 통해 동반진출하는 것이 유리
 - 신압록강 대교 건설과 함께 신의주일대 경제특구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대비한 건설사업 및 기술협력 등 중국과의 동반투자 대책 마련
 - 또한, 나진항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한 중국과의 동반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 개방을 대비한 동북아 물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컨소시엄 구상과 대책 마련이 필요

- **(북한 자원 공동 투자)** 북한 지하자원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과 함께 점진적인 남북 공동자원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공동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 현재까지의 남북 간 공동 지하자원 개발 현황을 검토하고, 북한 지하자원

- 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북한 지하자원 개발 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보다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혹은 남한의 건설 장비 제공과 광물자원 교환 등의 사업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 현지실정에 맞는 공동 개발계획 추진
 - 재원조달을 위해 남북 협력기금의 확충과 국제 금융 자금 활용 방안으로 모색하는 한편, 다자간 금융협약체 결성을 통한 북한자원개발펀드를 설립 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 자원을 확보
- **(남북 경협 확대)** 개성 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강산·개성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남북 경협의 확대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 경제발전과 사회 개방 효과를 얻도록 함
- 개성공단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북한 기업의 진출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개방을 유도
 -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건설을 위해 단순한 물량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책 보다는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 전략 및 시장경제의 운용 노하우 전수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과 협력방안 강구
 - 개성공단의 3통(통행, 통신, 통관)과 노무 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제품 원산지 규정, 전략물자 반출 허용 등의 문제 해결
 -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 및 성과급제 도입 및 출퇴근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 금강산·개성 관광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백두산, 묘향산 등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남북 간 관광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 개방을 유도

최성근 선임연구원(3669-4405, csk01@hri.co.kr)

<부록>

< 중국의 대북 자원 개발 투자 현황 >

광산명	광종	추진현황	비고
무산	철	-'04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100백만 위엔 설비 투자, -'06.11 통화강철 및 오광그룹과 컨소시엄 구성 50년 채굴권확보 -'07년 철정광 80만 톤 생산 수입	추진중
덕현	철	-'07.3 홍콩평항투자집단공사와 협력계약, 투자규모 6억 위엔, -'08년 철정광 5만톤 생산 수입	추진중
웅진	철	-'08.6 요녕성서양그룹과 개선무역총회사 공동 「서해합영회사」 설립 -1단계 투자규모, 3,000만 유로	추진중
은파	연 아연	-'06.3 청해성 서부광업유한책임공사와 채취공업성 은파광산 합작 합의서 체결, 투자규모 350백만 위엔	추진중
장진	몰리 브덴	-'04.5 단둥위민국제상무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양총회사 공동 「대 양-중당국제합영집단공사」 설립 -합영투자규모 240만 유로(중국 50%, 북한 50%)	추진중
혜산청년	동	-'05.2 장백초금광업유한공사 44백만 위엔 투자 합의 (투자 보류) -'08.11 중국완상그룹과 혜중광업합영회사」 설립	미확인
8월	동	-'06.9 총위안광업과 개선무역총회사 공동개발계약 -합작투자규모 10백만 위엔	미확인
오룡	철	-'06.5 연변대원조철유한공사와 조선금천무역회사 합영 「금대광산 개발무역회사」 설립, 투자규모 316백만 위엔	미확인
문락평	철	-'06.4 중국지린수광과 개선무역총회사 합작계약, - 투자규모 100백만 위엔	미확인
룡흥	몰리 브덴	-'07.9 저장성 광서우집단공사와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공동 「대광합영회사」 설립 .투자규모 443만 달러	미확인
보천	금	-'06.9 베이핑광업과 개선무역총회사 공동개발계약 -합작투자규모 20백만 위엔	미확인
수안	금	-'07.1 중국지질탐사대와 금강연합기업소 공동탐사	미확인
선천	금,은	-'06.4 중국 유색광업집단 및 지린하오룡(昊融)집단 공사와 북한 금강총회사 공동개발 MOU 체결	미확인
28직동 청년탄광	무연탄	-'05.4 중국의 홍콩투자유한공사 및 허계집단국제공정 유한공사와 북한의 전력공업성 MOU 체결 -발전 및 탄광 시설보수 투자, 광산물 상환조건	미확인
천성청년탄광	무연탄	상 동	미확인
룡등탄광	무연탄	-'05.10 중국 오광그룹과 북한 석탄공업성 구장탄광연합기업소 합 작합의	보류
룡문탄광	무연탄	-'05.10 중국 북경구룡주국제무역공사와 북한석탄 공업성 구장지 구탄광연합기업소 합작합의	보류
강안탄광	갈탄	-'05.7 중국 심양오신유한공사와 합작계약 -'07년 침수 복구	보류
덕성	철	-'04.3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와 북한 금속 공업성 덕성광산 합작투자 합의, 투자규모 100백만 달러	보류
상농	금, 동	-'04.8 초원산동국대황금고빈유한공사와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 원회 간 금 채굴 MOU 체결	보류

자료 : 2009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고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미국	2.1	0.4	-0.7	1.5	-2.7	-5.4	-6.4	-0.7	3.5	-2.7
EU	2.7	0.7	0.7	-0.3	-0.3	-1.8	-2.5	-0.1	-	-4.2
일본	2.3	-0.7	4.0	-4.3	-5.1	-12.8	-12.4	2.3	-	-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	-3.4	-4.2	-2.2	0.6	-1.0

주 1) : 2008년, 2009년 2/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3월말	6월말	9월말	10월 23일	10월 3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2.66	3.54	3.30	3.49	3.49	0.00%p
	엔/달러	90.80	98.98	96.33	89.91	92.14	91.47	-0.67¥
	달러/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5004	1.4837	-0.0167\$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9,972	9,963	-9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10,283	9,891	-39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3.94	4.16	4.39	4.59	4.52	-0.07%p
	원/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81.5	1,182.5	1.0원
	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640.2	1,580.7	-59.5p

주 : 10월 30일 해외 지표는 전일(10월 29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3월말	6월말	9월말	10월 23일	10월 3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49.65	69.08	70.28	79.77	80.12	0.35\$
	Dubai	36.45	46.80	71.85	65.33	78.52	75.52	-3.00\$
CRB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80.34	276.16	-4.1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